

# 백원국 2차관, “GTX-B 착공 초기부터 사업관리 철저” 주문

## - 15일 착공식 후속 조치로 재정·민자 구간별 추진현황 점검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15일(금) 오후 서울역 인근 B노선 재정 구간(용산~상봉)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, 철저한 사업관리를 지시하였다.
  - 이번 방문은 3월 7일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착공기념식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.
- 먼저, 백 차관은 점검 회의에 앞서 '23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1년간 협상 끝에 최근 실시협약을 체결한 대우건설 컨소시엄(수도권광역급행철도 비노선 주식회사)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.
  - “민자 사업자는 책임감을 갖고 건설 단계부터 향후 전체구간 운영관리 까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달라”면서, “정부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.
- 백 차관은 대통령께서 B노선 착공기념식에 참석하여 전체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하신 점을 언급하며, “공사 중에는 자재 수급 등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, 착공 초기부터 모든 여건을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”고 당부하였다.
  - 특히, “B노선은 도심지 통과 구간이 많아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, 결국 국민께서 이용할 철도임을 감안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적극 검토해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- 이어, 백 차관은 “설계가 진행 중인 일부 구간은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모든 구간 착공을 완료하여 국민께 약속드린 '30년 개통에 차질 없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”할 것을 주문하였다.
  - 또한, “공사 중 소음과 진동은 최소화하고 교통 통제 시에는 우회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챙겨달라”고 거듭 당부하였다.

2024. 3. 15.

국토교통부 대변인